

# 노란 지프니 포기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그림 | 앤 멕 아르보탄테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Rosevi Mojica-Sung)

그림 | 앤 멕 아르보탄테 (Ann Megg Arbotante)

편집 | 김은파, 이수인, Mike Jaff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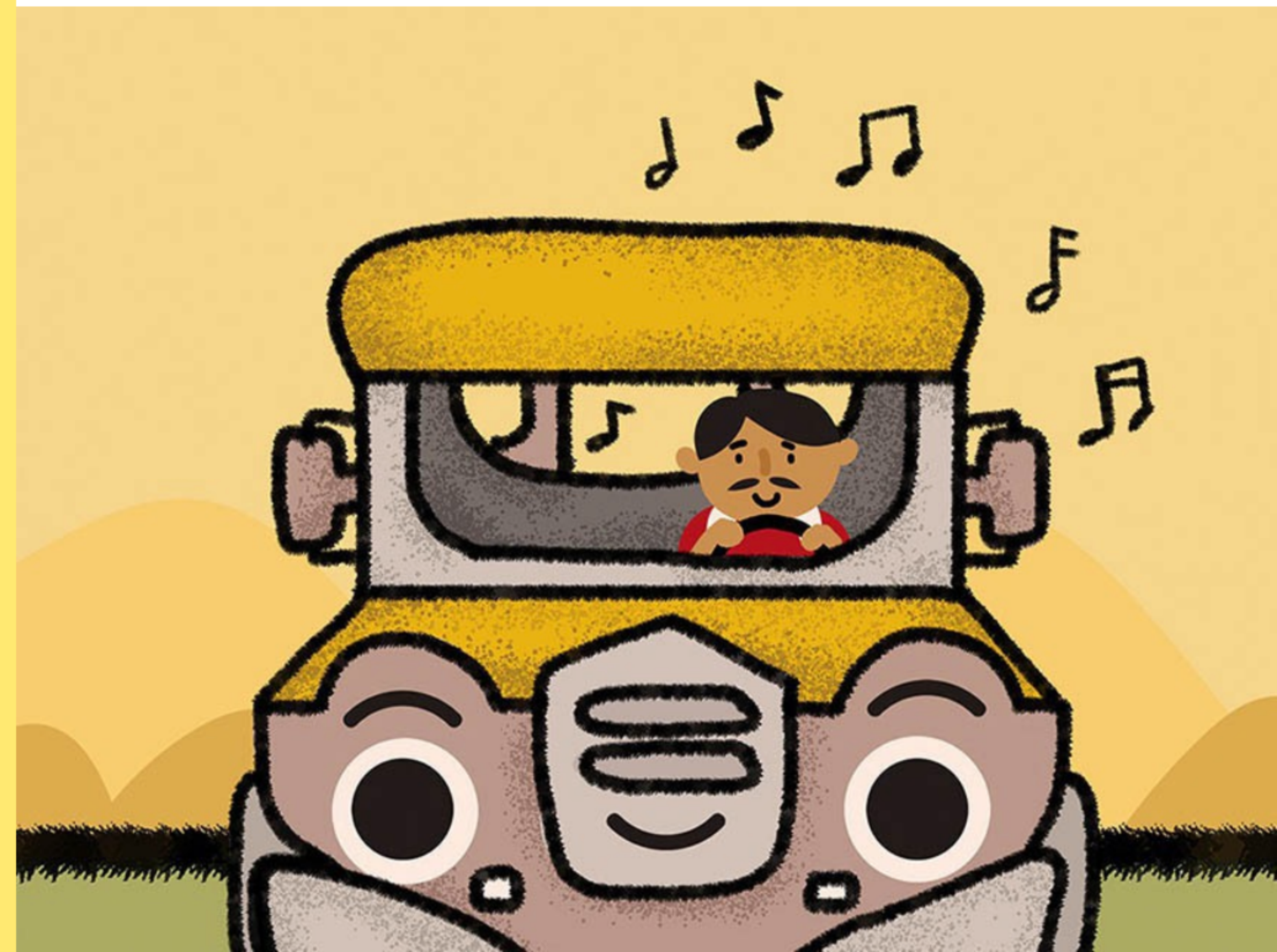
한국어 번역 | 김은파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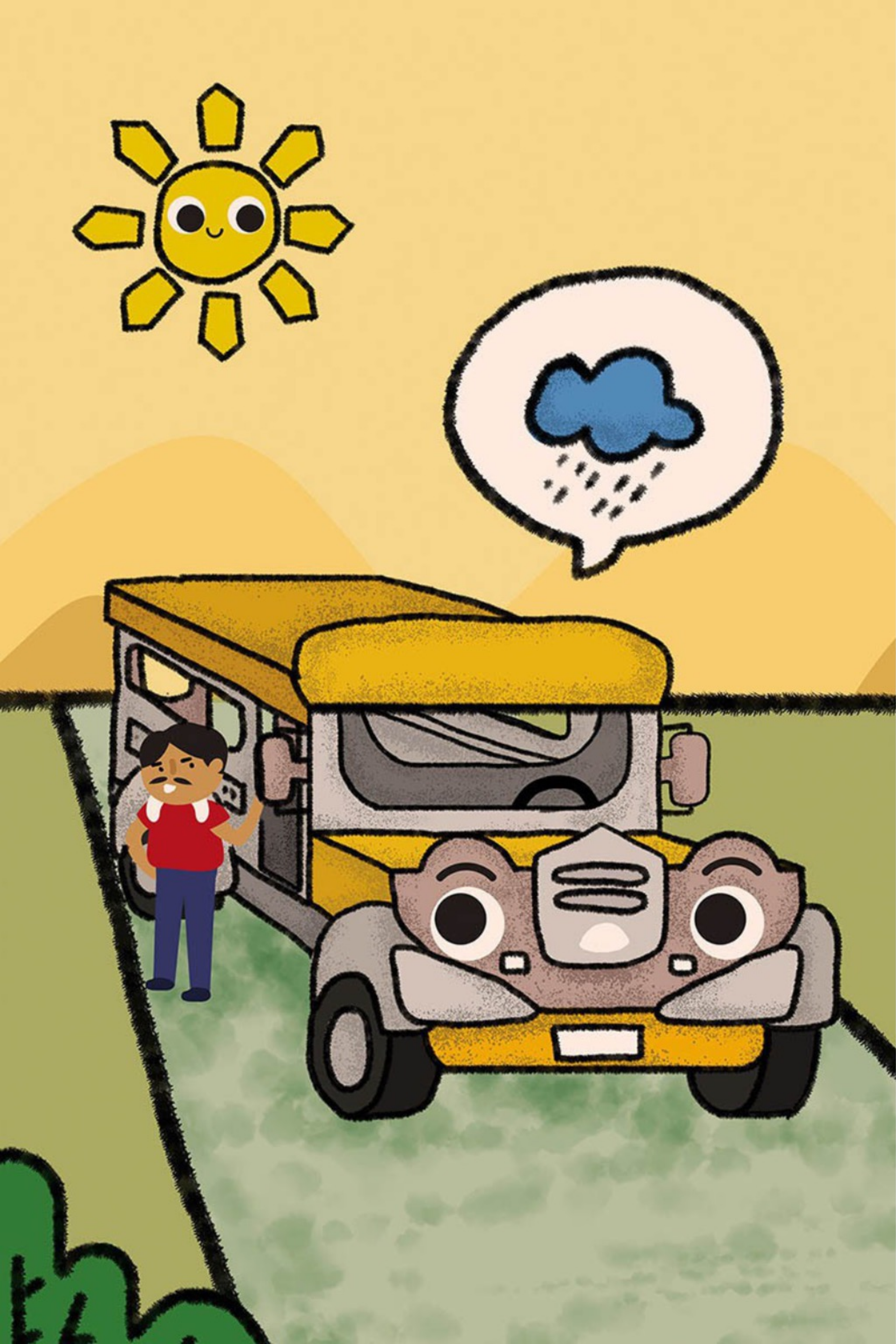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쉰 언 비, 중국어: 곡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이 노란색 ‘지프니’의 이름은 포기입니다. 지프니는 필리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탈것입니다. 전쟁 후 필리핀에 남겨진 미국 지프차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버스입니다. 포기는 알록달록하게 장식된 멋진 지프니입니다. 포기를 운전하는 후안 아저씨는 지프니 안에서 음악을 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후안 아저씨가 포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이야.  
우리는 다시 바빠질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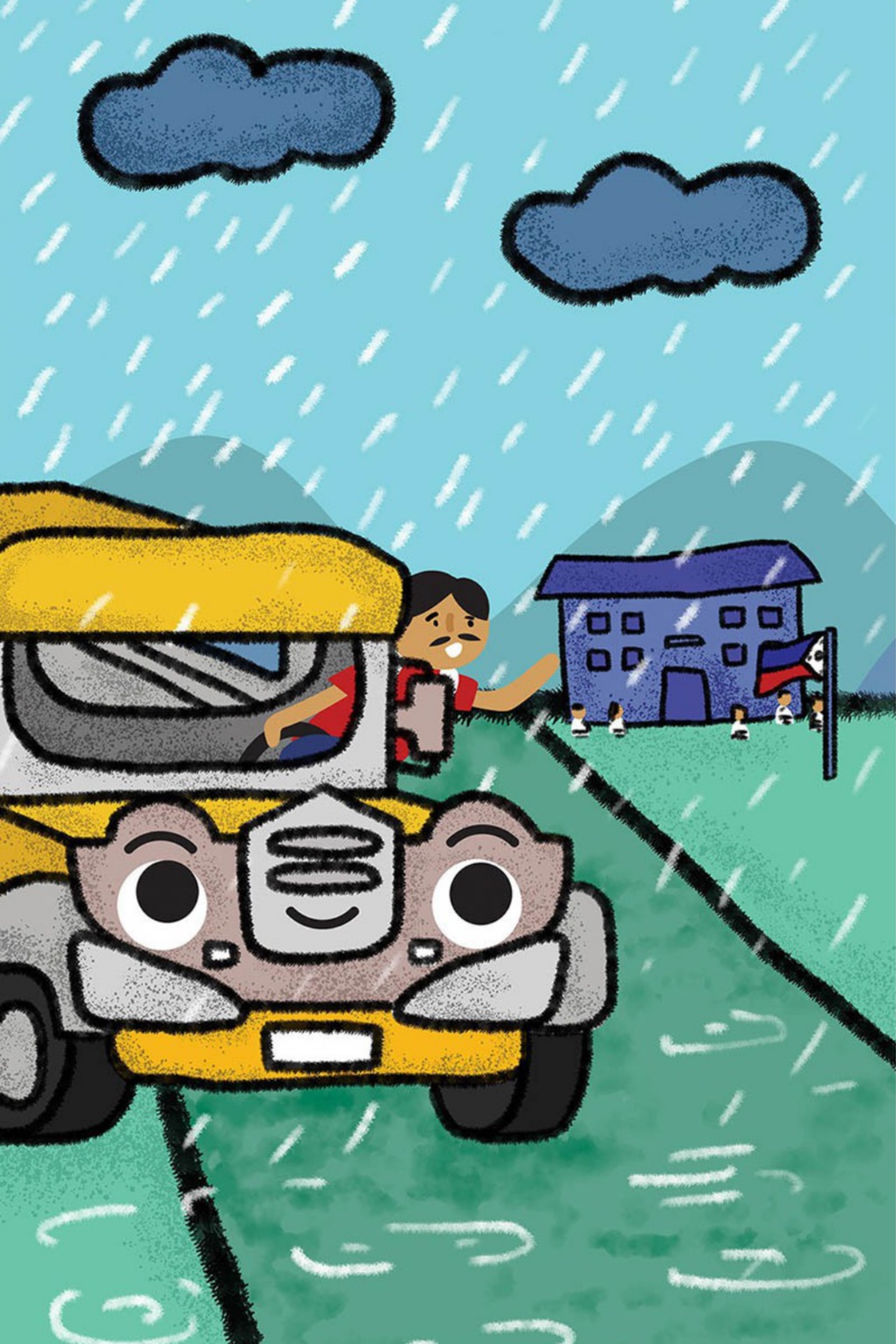
필리핀에서는 6월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또, 6월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고 종종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다음 날인 개학 첫날은 날씨가 아주 더웠습니다. 점심 시간에 후안 아저씨는 쉬면서 팔빙수와 비슷한 ‘할로할로’를 먹었습니다. 포기도 함께 쉬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릴 거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 따뜻한 햇살 좀 보세요!” 포기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 우기가 시작되었으니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어!” 하고 후안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버스나 트라이시클, 포기 같은 지프니가 아침에 학생들을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학생들을 태워 집으로 데려옵니다. 오후 4시에 포기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비가 계속 내렸고 학교 앞은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이시클 엔탱은 포기 옆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기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너무 높아! 학생 두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어려울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엔탱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다줄게. 걱정하지 마!”  
포기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은 물이 차오른 것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후안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포기와 내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거야. 가는 길에 신나는 음악도 들을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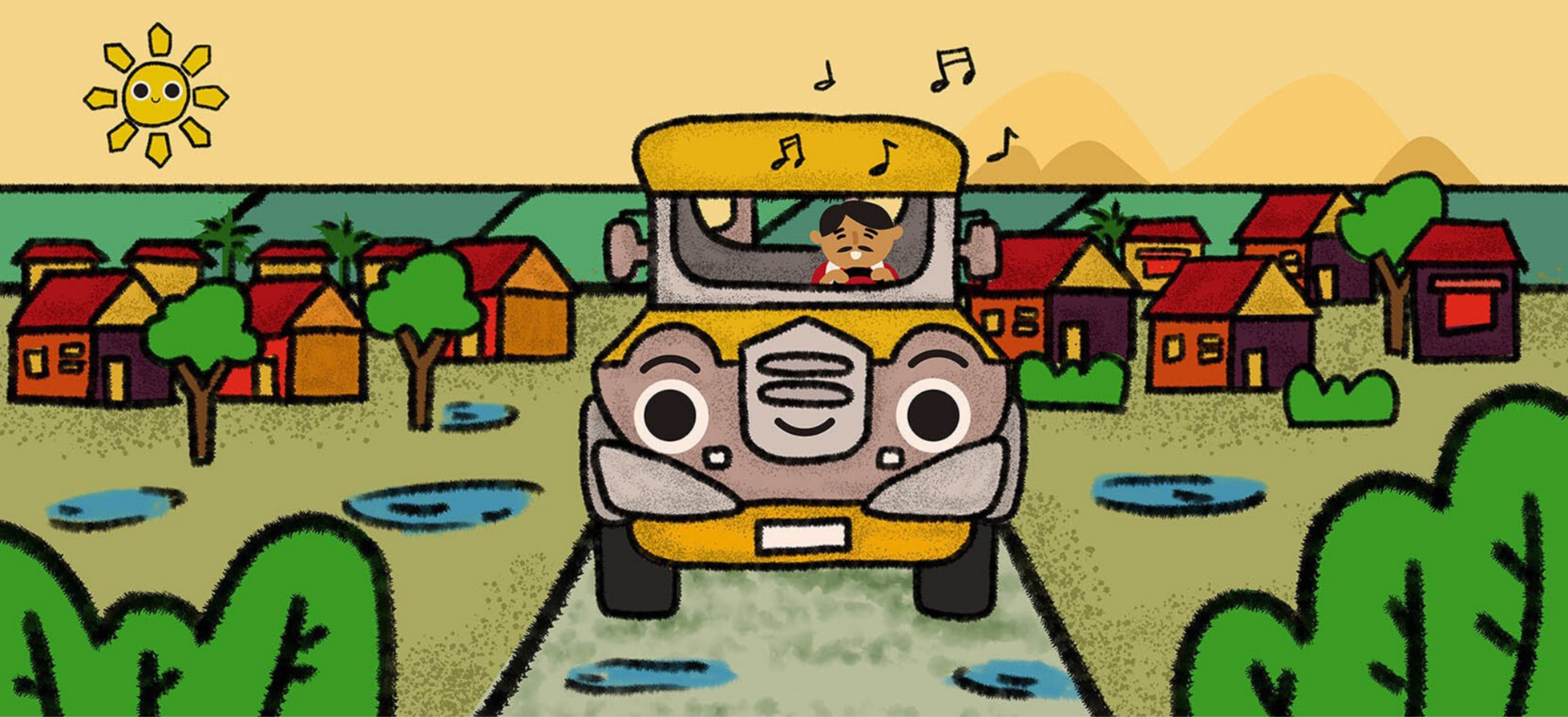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안심했습니다. 후안 아저씨는 아이들을 포기에 태우고 자리에 앉힌 다음 출발했습니다.



후안 아저씨와 포기는 빗속에서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후안 아저씨에게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내일 보자!” 후안 아저씨와 포기는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며 주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내려 준 다음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포기, 오늘 참 잘했어! 정말 고마워.” 하고 후안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별말씀을요! 해가 나든 비가 내리든 아저씨랑 같이 운전하는 건 즐거워요!” 하고 포기가 대답했습니다.

“노란 지프니 포기”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